

 과학기술부 정책홍보 담당관실	보도자료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보도 시점	'06. 3. 31 조간부터		
		자료배포일	'06. 3. 30	매 수	총 2 매
	담당 과학기술기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	팀 장	이준태	031) 436-8658	
		사무관	오성배	031) 436-8659	

대덕연구개발특구, 제1호 “연구소기업” 탄생

- 새로운 연구성과 사업화 모델로서 정착 가시화 -

-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소기업 1호가 드디어 탄생했다.
- 과학기술부(부총리겸 장관 金雨植)는 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의 핵심제도의 하나로서 도입된 “연구소기업”이, 대덕 특구육성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설립·승인을 받음으로서 “제 1호 연구소기업”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- 연구소기업제도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성과(기술)와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 등을 결합하여 설립하는 기업으로서,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.
 - 과거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성과는 민간기업에 기술이전(라이선스)을 통해 사업화되거나, 연구개발자인 연구원의 창업(스핀오프)이라는 제한된 방식만 가능하여,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사업화 방식으로서 “연구소기업”제도가 도입되었다.
- ※ 연구소기업의 정의 :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(법 제2조제5호, 시행령 제3조제2항)

- 금번에, 연구소기업으로 설립승인된 “(주)썬바이오텍”은 2004.2월 설립된 기업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한 방사선 이용기술(RT)을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출자하고, 파트너인 민간 기업은 자사의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을 접목하는 동시에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업이다.
- 과학기술부에서는 (주)썬바이오텍을 연구소기업으로 설립승인함에 있어, 현행 법령에 기 설립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소기업으로 설립승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, 이를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법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긍정적인 해석을 이끌어 냄으로써,
 - 특별법 시행 이후 신규로 창업되는 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경우에도 연구소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, 특구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고객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구현을 업무현장에서 실천하였다.
- 한편, 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.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출자시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비용을 지원하고(최대 3,000만원), 대덕특구지원본부내에 “설립지원자문단”을 구성·운영하고, 전문 교육과정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 - 또한, 연구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치를 완료하였으며(취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7년간 면제), 향후 대덕특구투자조합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이와 같은 종합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어, 공공연구기관은 “돈을 벌 수 있는” 기관으로 탈바꿈하고, 연구소기업은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화의 성공모델로서, 그리고 성공하는 기술벤처로 도약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